

정부, 지방교부세 4조 삭감...지자체 재정 운용 '비상'

광주 757억·전남 5299억·시교육청 1544억·도교육청 3000억 삭감 전망 국정감사 '교부세법 위반' 등 지적...지자체 등 사업 중단·축소 불가피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가뜰이나 어려운 광주·전남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위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세수 전액이 지방 재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재정 위기에 놓였던 지자체들이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또 다시 재정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광역지자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만 광주시가 757억원, 전남도가 52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국회의원은 9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돼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며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까지 위반하는 등 윤석열 정권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조 6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

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조 2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으며,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하는 주 원인이 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업 상당수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의 세수결손 여파로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도 10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23.51%로 가장 낮았으며, 전남도가 24.50%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합평군의 재정자립도가 7.16%에 불과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으며, 재선거가 치러지는 곡성(9.26%)과 영광(11.72%)의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규모만 4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6797억원), 전남(5299억원), 경남(4654억원), 강원(4411억원) 순으로 삭감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부

세가 삭감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 자료를 내고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 172개 중 48%인 83개 지자체가 조사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74개 지자체가 '당해 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용 의원은 "이런 보통교부세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2년 연속 보통교부세 대폭 감액에 따른 지자체의 곤란과 반발 심리가 확인됐다"면서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보통교부세의 목적 측면에서나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나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385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은 데 이어 추가로 올해 15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6200억원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300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벨 화학상에 베이커·점퍼·허사비스 노벨 물리학상에 존 홉필드·제프리 힌턴



데이비드 베이커, 존 점퍼, 데미스 허사비스, 존 홉필드, 제프리 힌턴

올해 노벨 화학상에 단백질 설계 예측에 공헌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디마인드의 존 점퍼, 데미스 허사비스가 공동수상자로 결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데이비드 베이커 워싱턴대 생화학자 교수, 구글 디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 존 점퍼 연구원을 202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미국 출신 존 홉필드와 영국 출신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존 홉필드는 미국 프린스턴대학, 영국인인

힌턴은 영국 에딘버러대학 소속이다.

노벨위원회는 두 수상자에 대해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머신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발견 및 발명'과 관련 공로를 세운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000만원)가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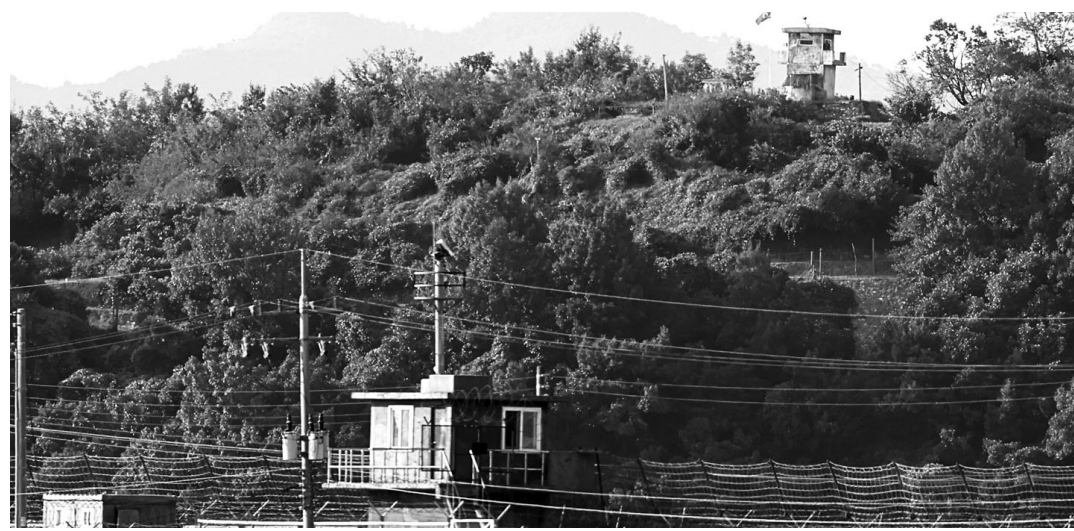
노벨 위원회는 이날 화학상에 이어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생리학·물리·화학·문학·경제학상에 대한 시상식,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평화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

북 "남과 연결 도로·철도 영구 차단 요새화 공사" 선언

전쟁 억제·안전수호 조치 파괴 어제 미군에 전화통지문 발송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초소.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 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제한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

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북한군은 남북을 철저히 분리하는 조치가 남한 지역에서 군사훈련과 미국 핵전략자산 전개, 한미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행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명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촉구

가루쌀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등 정부에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안정적 쌀 생산 및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시·도 배분량 확대, 가루쌀의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 매입, 벼 감축협약 인센티브를 별도 장려금으로 변경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월 정부의 쌀 수확기 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1만7000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올해 9월 25일 현재 17만4000원으로 20%나 폭락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타작물 전환과 가루쌀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했으며, 전남도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 전남은 전국 가루쌀 재배의 40%, 전국 벼 감축 협약의 31% 차지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 쌀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4년 공공비축미곡 정부 매입량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농식품부 직접 배정물량(가루쌀, 벼 감축협약)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시·도가 배정하는 물량이 24.5%나 감소됐다.

전남도의 경우 벼 매입 대상농가 4만2000호

가운데 5800호(14%)의 물량만 증가하고, 시·도 배정물량 대다수인 3만6200호(86%)는 오히려 감소돼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제적 쌀 수급대책을 위한 정부의 쌀 정책생산 시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되지만,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을 정부공공비축미곡 농식품부가 직접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엇보다 쌀 생산량 감축에 참여해 벼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에 공공비축미를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엇박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시책은 농업인이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착한 후, 가루쌀 및 벼 감축 인센티브 직접 배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공비축미곡 배정에 대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가루쌀은 공공비축미곡 물량 이외로 매입하고, 벼 감축협약(휴경·타작물 재배 등) 인센티브는 별도 장려금 등으로 변경할 것과 ▲농식품부 직접 배정량 18만6천 톤을 시·도 물량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노안지구 상업용지 분양공고

1. 분양대상 토지 및 분양가격

구분	실제지번(기번)	면적(㎡)	예정금액	입찰보증금	비고
숙박용지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059 (001-01-0001)	4,383	₩2,936,610,000-	입찰금액의 5% 이상	·일반상업용지 ·간매율 60% ·공작물 180% ·층수제한 3층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061 (001-02-0001)	5,524.8	₩3,867,360,000-		
남도문화재단지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1048 (002-08-0001)	8,209.4	₩6,021,594,900-		

* 자세한 내용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www.kwater.or.kr/land)의 분양공고를 참조

2. 분양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분양공고	2024. 10. 10(목) ~ 2024. 10. 22(화)	신문(24.10.10) 및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10.10 ~ 10.22)
입찰참가신청	2024. 10. 10(목) ~ 2024. 10. 22(화) 11: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www.kwater.or.kr/land)
입찰보증금 납부	2024. 10. 10(목) ~ 2024. 10. 22(화) 12:00	
개찰	2024. 10. 22(화) 15:00	
낙찰자 발표	2024. 10. 22(화) 18:00 이후	* 온라인청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가능
계약체결	2024. 10. 23(수) ~ 2024. 10. 24(목)	

3. 분양신청자격

가. 일반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 K-water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분양자격 제한

4. 분양신청방법

가. 분양신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http://www.kwater.or.kr/land)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방문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 내 분양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신청인은 신청 전에 우리 공사 온라인청약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 및 별첨파일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분양문의	·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경영과 ☎(062) 600-2117 ·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송촌로길 90
공사문의	·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시설과 ☎(062) 600-2135
온라인청약시스템 장애	· (온라인)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www.kwater.or.kr/land · K-water 정보기술지원실 ☎(042)629-2059

2024. 10. 10.

K-water 영산강보관리단장

뭇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뭇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증암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09월 24일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11월 25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0월 10일
주식회사 우수코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1110
청산인 이순교

정 정 공 고

본지 2024년 10월 7일자 게재된 덕일전력공사와 (주)이루스의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공고의 공고 중, 덕일전력공사의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소비말길79-20"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20"로 수정 공고함.

光州日報

구분	전화번호	발행처
북구	· 동 206-1820 · 중 205-193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안 571-7888 · 오 치 266-7801 · 동 433-1530 · 서 안 433-1530	북구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6001 · 동 양 222-9054 · 동 장 222-8171	동구
남구	· 남 부 673-6836 · 북 명 051-1833 · 북 선 673-6836 · 북 화 676-6805 · 진 월 671-7276	남구
서구	· 광 천 382-4788 · 상 명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원 선 376-7153 · 치 명 376-6511 · 동 명 602-0311 · 회 선 369-1625	서구
광안구	· 온 남 952-1887 · 동 국 959-1920 · 형 단 973-23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광안구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09월 03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에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유원회사 다모이저런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635, 2층 (동림동)
청산인 정일도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400건,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외과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6.13%)

매매가 78억 은행 42억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